

唐宋散文選集의 體系와 內容 研究*

— 《古文關鍵》 選文과 評點을 중심으로

박준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古文關鍵》의 選文 구성
 - 2.1 古文關鍵의 編選 목적
 - 2.2 古文關鍵의 編選 사상
3. 《古文關鍵》 評點의 체계와 의미
 - 3.1 評語의 체계와 내용
 - 3.2 圈點의 의미와 활용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 고전문학에 있어 문인들은 詩文選集을 편찬하여 자신의 문학관과 관련된 문학론을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孔子는 당시 유행하는 3000 여수의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한 三百篇을 선별하여 《詩經》을 편찬했으며 梁 蕭統도 南朝의 유태주의 문풍에 따라 詩, 文, 賦 등을 선별하여 《文選》 60卷을 찬술했다. 이런 전통은 후대에도 계속되었고 중국 고유의 문화 전달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역사에서 宋代는 사회·문화·경제적 가치관이 근대적 방향으로 전환

* 이 논문은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5858)

** 漢陽大 創意融合教育院 助教授.

되는 시기로 사회적으로는 門閥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出仕가 이뤄지고, 다양한 인재가 재능을 펼치면서 새로운 중국문화 현상이 생겨났다. 특히 北宋의 문인관료들은 내면의 修養을 통해 얻은 이치를 작품에서 표현하고, 시대문제를 타파하려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우국정신과 열정을 실천하며 施政하고, 한편으로 창작을 통해 문학정신을 가다듬는다. 北宋의 이러한 문화동력은 내면의 성찰을 통한 외부세계의 이해라는 방법으로 발전한다. 남송에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종합하여 朱熹는 性理學이라는 사상관과 散體 문장을 통해 시대정신을 표현한다. 즉 중국문화는 그 이후 성리학과 古文을 통해 사상 전통과 창작 경향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고대 중국의 문학전통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唐宋散文選集의 구성과 의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고대 문학이론은 이쉽게도 체계적이고 분명한 특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산문론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모호한 정의로 인해 체계적 정리가 어려웠다. 北宋에서 歐陽脩는 《醉翁詩話》를 통해 '詩話'라는 비평형식을 창조한다. 후대 문인들은 詩話, 文話, 序跋文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문학론과 비평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남송에는 다양한 古文 文選集이 출판되어 당시의 산문창작과 비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明清代에 唐宋散文이 창작의 경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詩文選集은 《詩經》과 《文選》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 편술되었다. 하지만 선집은 다양한 시대 요구와 작자의 목적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편찬된다. 현대에 魯迅은 선집 편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선본은 종종 각 작가의 전집이나 선집가 자신의 문집과 비교하여 훨씬 유해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편수가 많지 않지만 여러 작품을 포괄한 것이 물론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가까이는 선집가의 명성에 달려있고, 멀게는 고대 인물의 위세에 기대고 있다. 독자는 유명한 선집가를 통해 수많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살펴본다. ……대체로 문장의 작법에 관해 자신의 견해가 있는 작가는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유포하는 수단으로 文心이나 文則 혹은 詩品과 詩話에 의지하지 않고, 선본을 출판한다.¹⁾

1) 魯迅, 《集外集·選本》, 《魯迅全集》 제7권, 138쪽: 凡選本, 往往能比所選各家的全集或

즉 선집의 가치는 여러 종류의 작품을 하나로 포괄하여 다양한 문장의 작법과 評者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송대의 산문선집은 단순히 문장을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評點을 통해 텍스트를 비평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평점은 중국 고유의 문학비평 방식으로 唐代에는 詩評, 宋代는 文評, 明清代는 소설, 희곡 평점이 흥성한다. 이것은 중국문학이 詩에서 통속문학으로 발전하는 양상에 따라, 그 비평도 이에 호응하여 변화한 것이다. 明清代의 소설, 희곡 평점은 평자의 문학과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詩評과 文評·詞評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한정적이고 일관된 평자의 이해와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송산문선집 분석과 이해를 통해 산문 장르의 특성에 따른 예술 가치와 문학관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呂祖謙 《古文關鍵》을 통해 당송산문선집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는 대부분 《古文關鍵》의 作者와 版本, 評點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에 그쳤다. 최근 仇小屏 교수는 각 판본의 특징과 평점의 同異를 변별하고, 또한 수사학의 각도에서 평점의 의미를 분석했다.²⁾ 南宋代 편찬된 이 책은 최초의 당송산문선집으로 評語와 圈點을 부가하여 독자의 감상을 돕고 있다. 이러한 비평 방법을 통해 산문의 선별 원칙과 평점의 형식,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古文關鍵》은 唐宋八大家 명칭의 유래와 당송 고문의 경전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古文關鍵》의 편찬 의도와 체계·산문비평론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문학비평사에서 지위를 점검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남송시대 문인들은 《古文關鍵》뿐만 아니라 謝枋得 《文章軌範》, 樓昉 《崇古文訣》, 眞德秀 《文章正宗》을 잇달아 출판하여, 당대와 후대에 많은

選家自己的文集更流行, 更有作用. 冊數不多, 而包羅諸作, 固然也是一種原因, 但還在近則由選者的名位, 遠則憑古人之威靈, 讀者想從一個有名的選家, 窺見許多有名作家的作品. ……凡是對於文術, 自有主張的作家, 他所賴以發表和流布自己的主張的手段, 倒並不在作文心, 文則, 詩品, 詩話, 而在出選本.

2) 仇小屏, 《呂祖謙〈古文關鍵〉文章論研究》, 臺北: 萬卷樓, 2010.

영향을 끼쳤다. 이들 산문선집은 각자의 편선 목적, 선문 원칙, 평점 방식에 있어 독자적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 선집들을 《古文關鍵》과 비교하여 그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古文關鍵》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살펴보자. 첫째로 선별된 산문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즉 작자별 문장 선별의 원칙, 순서, 체계와 수량, 분포를 정리하여 편선의 목적을 분석한다. 둘째로 평점을 통해 평자의 의도와 문학사상과 심미의식을 탐구한다. 셋째로 권점부호를 정리하고, 그 사용 특징과 표현의미를 고찰한다. 넷째로 위의 방법을 통한 분석으로 평자의 문학사상과 당시 남송 산문 문학론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한다.

평점은 중국 고유의 독특한 비평방식이다. 이 비평방식의 결점과 장점은 명확한데, 장점은 독자가 작품의 구성과 사상 내용, 예술 표현을 다양한 평점부호와 평어를 통해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단점은 독자의 창의적인 해석과 사고를 방해하고 임의적 선별과 주관적 평점으로 획일적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평점의 가치와 의미는 첫째로 간략한 형식으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로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고 유효한 독해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문학비평 고유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풍부한 관련 문사철 지식을 통해 광범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받고 시야를 새롭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古文關鍵》의 選文 구성

중국에서는 풍부한 고대문학 저술이 출판되었고 이러한 작품 가운데 고대문학의 정신과 문화 정수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다. 산문선본은 산문 장르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먼저 본 논문은 편술자의 편찬 목적과 의미, 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저술에 나타난 평어와 독법, 권점을 통해 작자의 문학사상 및 당송팔대가의 경전화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이해하고, 그 속에 함유한 문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문선본이야말로 고전 산문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당시 문학을 깊이 이해하는 소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작자인 呂祖謙의(1137-1181) 字는 伯恭이고 浙江 金華사람으로 孝宗 隆興元年(1163) 진사에 합격하고 太學博士, 著作郎, 國史院編修官을 역임한다. 이후 낙향하여 金華에 麗澤書院을 창건하고 강학하면서 저술활동에 주력한다. 그의 曾祖父 呂好問은 東萊郡候를 하사받았으므로 학자들은 呂祖謙을 東萊先生이라고 불렀다. 시문집으로 《東萊集》을 남겼고 《古文關鍵》과 《東萊標註老泉先生文集》 등의 文選集도 편찬했다. 또한 만년에는 시문총집인 《宋文鑑》을 편술하여 송대 문학총집을 편찬했다. 呂祖謙의 가문은 북송 대신 呂夷簡에서 시작하여 구당과 영수인 呂公著를 거치며 발전해온 門閥이다. 呂氏 가문은 《宋元學案》에 모두 7世 22人이 기록될 만큼 거대한 문벌 귀족으로 廣博한 학습태도와 실사구시의 실용성을 중시했다. 《宋元學案·東萊學案》은 '선생은 문학과 학술에 천부적으로 바탕에 두고 家學을 학습하였다. 中原學派에서 전승된 문헌을 근거로 사방으로 스승과 벗의 강독을 通博하였으니, 치우치고 막히는 바 없이 조화롭다.'³⁾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여씨 가문의 학문태도는 呂公著부터 呂本中에 이르기까지 廣博한 자료를 이용하는 문헌연구를 중시했다.⁴⁾

이러한 가문의 전통에 따라 呂祖謙은 경학, 사학, 문학 연구에 전념하여 일생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古文關鍵》은 그의 유일한 산문선본이다. 그는 27세에 과거 급제 이후 麗澤書院을 창립했고 과거 시험관을 역임하면서 다시

3) 《宋元學案》 卷51, 4쪽: 文學術業, 本于天資, 習于家庭, 稽諸中原文獻之所傳, 博諸四方師友之所講, 融洽無所偏滯.

4) 《宋元學案》 卷36, 581쪽: 蓋自正獻以來所傳如此, 原明再傳而為先生, 雖歷登揚、游、尹之門, 而所守者世傳也. 先生再傳而為伯恭, 其所守者亦世傳也. 故中原文獻之傳獨歸呂氏, 其餘大儒非及也.

博學鴻詞科에 급제했다. 또한 進士試를 주관하면서 명망을 얻었고, 과거에 응시하는 학인의 학습을 위한 《古文關鍵》을 편찬하게 된다. 張秀惠는 《古文關鍵》과 《東萊左氏博議》는 모두 科擧 응시를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고, 乾道 5년 모친 居喪기간에 여택서원에서 강학하면서 편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 즉 이 책은 乾道·淳熙 연간(1173-74)에 찬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1 《古文關鍵》의 編選 목적

張雲章은 《古文關鍵·序》에서 “(古文關鍵은) 그 評語와 圈點을 살펴보면 또한 學人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하나를 통해 셋을 알게 하는 뜻을 담고, 또한 後卷은 論策이 많아 과거에 취하여 쓰기 편리하다. 원래 일부러 채록하여 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능히 오랫동안 멀리 전해졌다.”⁶⁾라고 설명했다. 여택서원에서 呂祖謙의 문하생은 특히 많았고, 강학의 교재로 《古文關鍵》을 사용하였다. 여조겸은 이 책을 산문창작의 교본으로 편술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시험의 작문 교재로 사용되었다. 《左氏博議·序》에도 “학인의 과거 시험을 위한 저작이다.”⁷⁾라고 적고 있다. 呂祖謙의 생애와 가학의 풍격으로 살펴 보건데, 그는 교육을 중시하였고 아우 呂祖儉 등의 도움으로 서원을 창건하였으며, 《麗澤講義》 등의 교재를 편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學人의 문장이 미려하다면, 반드시 그 미려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일을 처리함이 타당하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⁸⁾라고 하면서, 모든 일은 그렇게 된 까닭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그는 사물의 보편 규율을 궁구해 여러 도리와 사리에 관통하는 원리를 탐구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5) 張秀惠, 《南宋古文評點研究》(政治大學中文研究所 碩士論文, 台北: 1986), 13쪽.

6) 張雲章, 《古文關鍵·序》: 觀其標抹評釋, 亦偶以是教學者, 乃舉一反三之意, 且後卷論策爲多, 又取便於科擧, 原非有意採輯成書, 以傳久遠也.

7) 呂祖謙, 《左氏博議·序》: 左氏博議者, 爲諸生課試之作也.

8) 呂祖謙, 《東萊集外集》卷6: 夫人之作文既工矣, 必知其所以工. 處事既當矣, 必知其所以當.

학습태도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의 방법과 원리를 찾으려고 했을까? “時文과 雜文 類를 선별한 것은 지난번 특별히 과제 응시생을 위한 것일 뿐이다. 마치 지난 겨울 40편을 다시 선택하여 응시생이 살펴보고서 분명하여 완곡하지 않고 경쾌하지만 전아함이 부족한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뿐이고, 또한 다른 깊은 뜻은 없다.”⁹⁾라고 했는데 이는 그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呂祖謙은 어떻게 작문을 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에서 ‘문장을 배우려면 반드시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을 깊이 읽어야 한다. 먼저 문장의 체계를 살피고, 그 후 선인의 의도를 담은 구절을 두루 살펴야 한다.’¹⁰⁾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즉 문장 학습은 먼저 문장의 체계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자의 습작 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예를 들면 “첫째 大概과 主張을 살피고, 둘째 文勢와 規模를 고찰하며, 셋째 綱目과 關鍵을 살펴보고, 넷째 警策과 句法을 살핀다.”¹¹⁾라고 적고 있다. 즉 문장은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착안하여 전체의 대강을 살펴보고, 이어서 미시적 탐구를 통해 그 首尾의 구성과 開閉의 결합 및 句法の 융합에 따른 호응을 고찰하여,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古文關鍵》은 總論에 이어서 <看韓文法>, <看柳文法>, <看歐文法> <看柳文法>, <看蘇文法> 등으로 작가별 이해방법을 적고 있다. 즉 학인은 선인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여 특징을 도출해내는 한편 함축된 비평용어를 통해 예술성을 숙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卷頭에서 <論作文法>과 <論文字病>을 통해 바로 창작의 전 과정과 각종 병폐를 지적한다. 그러므로 呂祖謙은 ‘以

9) 呂祖謙, 《東萊集別集·與朱侍講元晦》 卷8: 揀擇時文, 雜文之類, 向者特為舉子輩課試計耳. 如去冬再擇四十篇, 正是見作舉業者, 明白則少曲折, 輕快則欠典重. 故各舉其一, 使之類為耳, 亦別無深意.

10)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學文須熟看韓·柳·歐·蘇, 先見文字體式, 然後遍攷古人用意下句處.

11)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第一看大概主張, 第二看文勢規模, 第三看綱目關鍵, 四看警策句法.

상의 韓·柳·歐·蘇 문장 評語는 說齋先生 唐仲友 또한 이 방법으로 학인을 지도하고 일깨운 것이다.¹²⁾라고 언급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古文關鍵》 편찬 목적이 학인의 과거준비를 지도하기 위함을 보여준다.

《古文關鍵》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陳振孫은 “《古文關鍵》 2 권은 呂祖謙이 韓愈·柳宗元·歐陽脩·三蘇·曾鞏 등 여러 작가 문장을 취하여, 圈點과 註釋을 달아 초학자를 가르치는 것이다.”¹³⁾라고 말했다. 또한 《四庫總目提要》에서 “(呂祖謙은) 그 주제를 서술한 구성의 요처에 각기 (권점을) 표시하여 학인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시하였으므로 ‘關鍵(핵심)’이라고 불렀다.”¹⁴⁾라고 평가했다.

張雲章은 《古文關鍵·序》에서 “呂祖謙의 《古文關鍵》은 당시에 전하여 학습되었고, 지금 보는 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결국 감춰져 빛나지 않게 되고, 중시되지 않는 것이 가히 안타깝다”¹⁵⁾라고 序文을 작성했다. 또한 胡鳳丹은 《重刻〈古文關鍵序〉》에서 “이 작법을 모르고서 작문을 할 수 없고, 선생의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선인의 작법 묘처를 알 수 있겠는가?”¹⁶⁾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俞越은 “선생의 문장 평론은 지극히 세밀하고, 무릇 문장의 정신과 혈맥은 圈點으로 끌어내었다. 그 작문의 포인트는 圈點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락의 소재는 그 옆에 乙을 그어 독자의 눈을 일깨우고, 학자는 이것에 따라 구하니 고문의 핵심은 앉아서도 얻을 수 있었다.”¹⁷⁾라고 跋文을 달았다.

12)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以上評韓柳歐蘇等文字, 說齋先生唐仲友, 亦常以此說誨人.

13) 陳振孫, 《直齋書錄解題》卷15: 呂祖謙, 所取韓柳歐蘇等諸家文, 標抹注釋以教初學.

14) 《四庫全書提要》卷187: 各標舉其命意布局之處, 示學者以門徑, 故謂之‘關鍵’.

15) 張雲章, 《古文關鍵·序》: 東萊呂子關建一編, 當時多傳習之, 今世見者或罕矣. 使竟隱而弗彰, 不重可惜邪?

16) 胡鳳丹, 《重刻〈古文關鍵序〉》: 不知此法無以作文, 不讀先生是書, 又何以知古人作文之法妙哉?

17) 俞越, 《古文關鍵·跋》: 先生論文極細, 凡文中精神, 命脈, 悉用筆抹出; 其用字得力處, 則或以點識之; 而段落所在, 則鉤乙其旁, 以醒讀者之目. 學者循是以求, 古文關鍵可坐而得矣.

2.2 古文關鍵의 編選 사상

《古文關鍵》은 당송 문인의 산문 62편을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唐代 韓愈·柳宗元, 北宋 歐陽脩·蘇軾 작품을 중점적으로 編選한다. 王應麟은 《玉海》에서 “呂祖謙 선생은 ‘먼저 《사기》·《한서》·《문선》·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曾鞏·王安石·陳師道·張耒의 문장을 택했는데, 비록 두루 읽을 수 없더라도 그것을 택하면 世人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먼저 秦漢·韓愈·歐陽脩·曾鞏의 문장으로 토대를 보양하고, 四六文 또한 歐陽脩·王安石·蘇軾의 三集을 살펴 본다.’”¹⁸⁾라고 呂祖謙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것은 呂祖謙이 작문의 방법으로서 먼저 秦漢·韓愈·柳宗元·歐陽脩·曾鞏 등의 散體 문장을 숙독하고, 계속하여 歐陽脩·王安石·蘇軾의 유행하는 四六文을 학습하여 과거를 준비하도록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古文關鍵》은 왜 진한의 문장을 수록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이것이 작문 학습의 과정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 응시에 시간이 있으면, 먼저 진한을 비롯한 문장을 두루 학습하고 토대를 굳건히 하지만, 과거에 임박해서는 중점적 문장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呂祖謙은 “時文과 雜文 등을 선별한 것은 지난번 특별히 科試 응시생을 헤아린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씩을 예로 들어 분류하였을 뿐이다.”¹⁹⁾라고 하면서 학습의 요체를 제시하고 학습 과정을 설명한다.

	韓愈	柳宗元	歐陽脩	蘇洵	蘇軾	蘇轍	曾鞏	張耒	총합
書	4		1	2					7
序	2	1	2				2		7
原	2								2

18) 王應麟, 《玉海·誦書》 卷201: 東萊先生曰: 先擇史記·漢書·文選·韓·柳·歐·蘇·曾·王·陳無己·張文潛文, 雖不能徧讀, 且擇其易見, 世人所愛者誦之, 先讀秦漢·韓·柳·歐·曾文字以養根本, 四六且看歐·王·東坡三集.

19) 呂祖謙, 《東萊集》 別集 卷8: 揀擇時文, 雜文之類, 向者特為舉子輩課試計耳. ……故各舉其一, 使之類為耳.

論	1	2	8	3	9	1	1	2	27
辯	1	1							2
議		1					1		2
碑					1				1
說	2	1							3
解	1								1
傳		2							2
贊					1				1
敘					2				2
기타				1	3	1			5
합계	13	8	11	6	16	2	4	1	62

<표1> 《古文關鍵》 수록 작자와 문장형식 통계표

위의 표는 《古文關鍵》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의 수량, 문체를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呂祖謙의 편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古文關鍵》은 ‘唐宋八大家’ 명칭의 원형을 확립하였고, 은연중으로 蘇軾을 중시하고 王安石을 경시한 당시의 경향을 반영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학유파 가운데 ‘唐宋八大家’는 明代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에서 散體 散文의 본보기로 추앙된다. 이처럼 작가를 선별하여 역대 비평가들은 자신의 散文觀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唐宋八大家’라는 유파 정의는 呂祖謙의 《古文關鍵》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 실제로 《古文關鍵》의 <總論看文字法>에서 呂祖謙은 唐宋 文人 11명을 평가하는데, 이 중 ‘唐宋八大家’는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어서 呂祖謙의 동료인 樓昉은 《崇古文訣》, 謝枋得은 《文章軌範》을 통해서, 명초의 朱佑은 《唐宋六家文衡》으로, 唐順之는 《文編》 등의 선문본을 통해 ‘唐宋八大家’의 문장을 역시 중시했고, 이런 경향에 따라 茅坤은 《唐宋八大家文鈔》를 통해 이 작가들을 하나의 산문 유파로 확립된다. 결국 이것은 특정 古文 流派에 대한 정의가 宋·元·明을 거치면서 확립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즉 《古文關鍵》의 편선 상황은 ‘唐宋八大家’ 유파에 대한 정의와 경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수록된 작품 편수는 8인 가운데 일부 작가에 편중되어 있다. 呂

20) 吳承學, <現存評點第一書>, 《文學遺產》(2003年 4期), 74쪽.

祖謙은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의 문장을 중시해 이들 4명이 80%에 가까운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呂祖謙의 선문 취지를 알 수 있다. 韓愈와 柳宗元은 중당 고문혁신의 영수로서 매끄러운 표현과 심후한 내용을 통해 ‘文以載道’의 창작론을 실현했으며 北宋 歐陽脩와 蘇軾은 平淡한 문풍과 深厚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문의 새로운 정취를 개척한 바 있다. 특히 소식은 4명중에서도 16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해 呂祖謙의 애호를 살펴볼 수 있다. 蘇軾 산문은 남송에 접어들어 그 문장이 解禁되고 궁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서 산문 창작의 표준으로 인정되었으니 이러한 呂祖謙의 관점은 ‘建炎 이래 蘇軾의 문장을 숭상하고, 학인은 모두 그것을 따르니, 四川의 학인들에게 더욱 심하여, 또한 ‘蘇軾의 문장이 익으면 양고기를 먹는 것이고, 날 것이면 나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²¹⁾라고 한 陸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呂祖謙은 또한 《呂氏家塾增注三蘇文選》 27권을 지어 三蘇 산문의 성취를 보급·확산시켜 당시의 문학풍조를 이끌었다. 呂祖謙의 編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王安石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비록 <總論看文字法>에서는 ‘王安石의 문장은 純潔하고, 그의 문장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기세가 없을 것’²²⁾이라고 평가했지만 결국 수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張智華 교수는 첫째로 정치적 영향에 기인하고, 둘째로 당시 문단의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확실히 呂祖謙은 구당파의 영수인 呂公著의 후예로서 新黨派의 영수 王安石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呂祖謙이 송대 시문총집인 《宋文鑑》에서 王安石의 奏議文을 수록했지만 아직 편수가 부족하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문장을 編選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편취의 태도가 역력한 것을 읽을 수 있다.

21) 陸游, 《老學庵筆記》 卷8: 建炎以來, 尚蘇氏文章, 學者翕然從之, 而蜀士尤盛, 亦有語曰‘蘇文熟, 喫羊肉, 蘇文生, 喫菜羹.’

22)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王文, 純潔, 學王不成, 遂無氣焰.

23) 張智華, 《南宋의 詩文選本研究》(北京: 北京師大出版部, 2001), 121-122쪽.

둘째로 《古文關鍵》은 ‘論’체 문장을 매우 중시했다. 宋代 과거는 정기적으로 보는 進士試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制科가 있었다. 시험의 주요내용은 詩賦와 論, 策과 經義 등이었다. 시부는 1차 시험으로 진행되고, 이후 論과 策을 통해 당락을 결정했다. 주요 科題인 ‘論’은 의론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논제에 대하여 천하의 사물과 경사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策’은 治道の 득실과 민생의 과실을 따지는 時務策이다. 經義는 경전의 주소를 인용하여 대책을 해석하는 것이다. 《古文關鍵》은 바로 학인의 과거 교재로서 시험의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론체가 62편 중 27편으로 약 43%를 점유하고 의론성이 강한 ‘原’·‘辯’·‘議’·‘說’ 또한 9편이니 절반 이상이 논변성이 강한 의론 선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論作文法>에서 “유용한 문장은 의론문이다.”라고 적고 있듯이 과거에 대응하는 실용적 의미를 중시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산문선집인 謝枋得의 《文章軌範》, 樓昉의 《崇古文訣》, 眞德秀의 《文章正宗》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古文關鍵》은 자신의 고유한 편선사상을 통해 당송대의 산문 작품을 선별했으며 그 기준은 후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바로 당송 고문이 경전화되는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古文關鍵》 評點의 체계와 의미

3.1 評語의 체계와 내용

《古文關鍵》은 文選集 가운데 評語와 圈點을 함께 사용한 첫 번째 산문선집이다. 먼저 評語를 살펴보면, ‘評’은 위치에 따라서 總評, 首評, 尾評, 夾評으로 구분할 수 있다. 總評은 목차 앞에 위치하면서 呂祖謙의 전체 문장에 대한 평

론과 견해, 작법과 장단점을 評述했다. 首評은 문장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위치하는 評論이고, 尾評은 문장의 끝에 문장 전체를 評論했다. 夾評은 夾批 혹은 旁批로 문장의 오른쪽에 바로 적는 圈點이다.

《古文關鍵》의 總評은 <總論看文字法>·<論作文法>과 <論文字病>으로 구성된다.

문장을 배우려면 반드시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을 숙독해야 한다. 먼저 문장의 구성을 살피고, 다음에 선인의 의도가 있는 구절을 두루 고찰한다. 蘇軾 문장은 마땅히 그 本意를 사용해야지, 만약 그 文辭만 사용하면 쉽게 謬證을 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大概·主張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文勢·規模를, 세 번째로는 綱目·關鍵을, 네 번째로 句法·警策을 살펴야 한다.²⁴⁾

먼저 <總論看文字法>은 먼저 학습 주요대상으로의 문인을 명확하게 지정한다. 즉 ‘문장을 배우려면 반드시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을 숙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학습 대상인 문체의 구성방식을 학습하고 문장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문장의 의도와 句法, 字法이 호응하도록 정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먼저 문장의 구성을 살피고, 다음에 선인의 의도가 있는 구절을 두루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呂祖謙이 소식 문장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한 것은 문장의 사상을 어떻게 확립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즉 문장을 짓는 것은 단순히 구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문체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자는 쉽게 謬證을 느낀다고 말한다. ‘蘇軾 문장은 마땅히 그 本意를 사용해야지, 만약 그 문사만 사용하면 쉽게 謬證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당시 蘇軾의 문장이 많이 읽힐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성과 주제의 뛰어난데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呂祖謙은 응축된 비평용어를 통해 문장의 독해 원리를 설명하며 문장을 독

24)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學文須熟看韓柳歐蘇, 先見文字體式, 然後遍考古人用意下句處. 蘇文當用其意, 若用其文恐易厭. ……第一看大概主張, 第二看文勢規模, 第三看綱目關鍵, 第四看句法警策.

해하는 法式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 ‘大概’와 ‘主張’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大概’는 문장 전체의 풍격으로 넓게 말하면 ‘體式’과 비슷한 개념이다. ‘主張’이란 첫 구절의 ‘用意’와 같은 의미로, 문장에서 ‘意’ 혹은 ‘主意’, ‘本意’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는 ‘文勢’와 ‘規模’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文勢’는 문장의 기세로 해석되고, ‘規模’는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성을 말한다. 셋째로는 바로 ‘綱目’과 ‘關鍵’을 제시했다. ‘綱目’은 문장 전개的主要 줄거리이고, ‘關鍵’은 핵심을 말한다. 이는 어떻게 하여야 主張이 首尾雙關하여 호응하고 서술의 순서가 올바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高低와 始終이 부합되면서 그 핵심을 찌를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²⁵⁾ 네 번째는 ‘警策’과 ‘句法’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때 ‘警策’은 문장의 요점을 어떻게 찌르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句法’은 어떻게 구절과 글자를 자르고 첨가하면 힘을 북돋고 녹아들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즉 ‘警策’은 陸機의 《文賦》에서 말하는 “몇 마디 말로 요점을 세운다면, 한 편의 경책이라고 할 만하다.”²⁶⁾라는 것이고 ‘句法’은 작문의 구성과 剪裁 등 변화를 주는 문장 기교를 말한다.

<總論看文字法>에서는 작가별의 특징을 정리했다. 먼저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의 문장을 ‘簡古, 關鍵, 平淡, 波瀾’ 등으로 분류해 문장 특징과 풍격을 정리했다. 그리고 작가별로 각기 전승 받은 경전을 제시하면서 《孟子》, 《國語》, 《韓非子》, 《戰國策·史記》라고 적었다. 먼저 韓愈의 문장 특징은 ‘簡古’라고 적고서 만약 단지 간고하기만 하고 다양한 준칙이 부족하면 투박하여 문체가 없음을 경계하라고 말했다.²⁷⁾ 이어서 柳宗元에 대해서는 ‘關鍵’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면 그의 장점을 학습하면서 화려한 변론을 경계하면 변화무쌍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²⁸⁾ 歐陽脩는 ‘平淡’이라고 정리하면서

25)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如何是主意首尾相應, 如何是一篇鋪叙次第, 如何是抑揚開合處.

26) 陸機, 《文賦》: 立片言而居要, 乃一篇之警策.

27)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學韓文簡古, 不可不學他法度, 徒簡古而乏法度, 則朴而不華.

28)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當學他好處, 當戒他雄辨, 議論文字亦反覆.

歐陽脩의 평담을 배우면서 그의 연원을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사하여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²⁹⁾ 蘇軾은 '波瀾'으로 정의하면서, 마땅히 핵심을 얻어야지 순결하지 않은 것을 경계하라고 말했다.³⁰⁾ 이것은 바로 문인 각자의 장점과 금기사항을 정리하여 작자의 풍격에 따른 학습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계속하여 曾鞏의 문장은 歐陽脩를 전문적으로 학습했지만 歐陽脩에 비해 골격을 잘 드러낸다고 말하고, 蘇轍은 너무 구속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王安石은 '純潔'하다고 하여 그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기개를 잃는다고 평가했다.³¹⁾ 일부 학자는 後卷의 選文에서는 王安石을 채록하지 않았지만 문장의 풍격을 정리한 것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古文關鍵》은 한 명이 편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³²⁾

한 편의 문장 가운데, 몇 줄은 반드시 가지런한 것이 있어야 하고, 몇 줄은 가지런하지 않은 곳이 있어야 한다. 어떤 때는 緩急이 있고, 어떤 때는 顯晦를 드러내고, 완급과 현회를 조절하면서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항시 씨줄과 날줄을 상통하게 하고, 혈맥은 그 사이를 지나면서 연결한다. 그 연후 형상이 나타나는데, 有形은 버리고 無形은 혈맥이다.³³⁾

<總論看文字法>이 學人의 문장 전체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면, <論作文法>은 세부적으로 작문의 방법과 비결을 논술하여, 창작할 때 주의할 것을 정리했다.

첫 번째로 한 편의 문장은 반드시 가지런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 때는 緩急을 사용하고 明暗을 드러내고 조절하

29)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學歐平淡, 不可不學他淵, 源徒平淡而無淵源, 則枯而不振.

30)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亦得關鍵法, 當戒他不純處.

31) 《古文關鍵·總論看文字法》: 曾文專學歐, 比歐文露筋骨. 子由文太拘執, 王文純潔, 學王不成, 遂無氣焰.

32) 吳承學, 《現存評點第一書》(文學遺產, 2003年4期), 78쪽.

33) 《古文關鍵·論作文法》: 文字一篇之中, 須有數行齊整處, 須有數行不齊整處, 或緩或急, 或顯或晦, 緩急顯晦相間, 使人不知其為緩急顯晦, 常使經緯相通, 有一脈過接乎其間然後有可形, 蓋有者綱目, 無形者血脈也. 有用文字, 議論文字是也. 爲文之妙, 在叙事狀情. 筆健而不羸, 意深而不晦, 句新而不怪, 語新而不狂. 常中有變, 正中有奇, 題常則意新, 意常則語新, 辭源浩渺不失之冗, 意思新轉處多則不緩, 結前生後, 曲折斡旋, 轉換有力, 反覆操縱.

먼서, 그 상황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씨줄과 날줄을 상통하게 하고, 그 혈맥을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것은 바로 有形의 비리와 無形의 혈맥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라는 주장이다. 유형의 비리는 외재적 골격구조로서, 수사와 표현, 기승전결, 단락 등을 말한다. 작자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뒤섞고 운용하여 구조를 완성하고, 무궁한 변화를 조성하여 독자에게 흥취가 뛰어난 미감을 제공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무형의 혈맥은 내재된 깊은 함의를 말하는 것으로 문장의 생명력에 해당하며 문장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을 말한다. 이렇게 내외의 기능을 논리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만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유용한 문장은 바로 議論體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작문의 오묘함은 바로 상황을 서사하고 진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筆體와 章句, 단어, 제목, 주제를 합리적으로 장악하여 신선하지만 괴이하지 않은 풍모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즉 중용의 미덕을 갖추고 과유불급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31개의 비평용어를 나열하면서 “이상의 품격은 하권의 작품에서 상세히 갖추었다.”라고 했다. 이러한 비평 술어들은 몇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上下, 離合, 聚散, 前後, 遲速, 左右, 遠近, 彼我, 一二, 次第, 本末, 立意는 문장 단락의 위치와 구조에 관계된 비평용어이고, 明白, 整齊, 緊切, 的當, 流轉, 豐潤, 精妙, 端潔, 清新, 簡肅, 清快, 雅健, 簡短, 闊大, 雄壯, 清勁, 華麗, 縝密, 典嚴은 문장의 외재적 형식인 글자·단어·구절·단락 등으로 문장의 모든 풍격과 관련된 비평용어이다.³⁴⁾

세 번째로 <論文字病>은 呂祖謙이 19가지로 작문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深, 晦, 怪, 冗, 弱, 澀, 虛, 直, 疎, 碎, 緩, 暗, 塵俗, 熟爛, 輕易, 排事, 說不透, 意未盡, 泛而不切인데, 어떤 병폐는 選文의 평어 속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呂祖謙이 지적한 작문의 문제점을

34) 《古文關鍵·論作文法》: 上下, 離合, 聚散, 前後, 遲速, 左右, 遠近, 彼我, 一二, 次第, 本末, 立意, 明白, 整齊, 緊切, 的當, 流轉, 豐潤, 精妙, 端潔, 清新, 簡肅, 清快, 雅健, 簡短, 闊大, 雄壯, 清勁, 華麗, 縝密, 典嚴.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평론들을 통해 呂祖謙의 작문 지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古文關鍵》의 전체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총평은 작문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풍격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창작 하는 것까지를 기록했다. 또한 창작에서 응당 주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학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했다.

《古文關鍵》은 45편의 문장에 首評을 적고 있고, 尾評은 7편의 문장에 남기고 있다. 평어의 주안점이 약간 다르지만, 이 평어들은 주로 다음의 몇 구절로 문장의 특색을 정리하여, 학인의 학습과 감상을 지도했다.

首評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문장의 구조와 단락의 리듬에 관련된 평어이다. <送徐無黨南歸序>에 대한 수평은 “이 편의 문장은 단계와 같아서 아래에서 위로 말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³⁵⁾라고 적고 있다. 작문은 점진적으로 끌어내고, 안정적으로 자세히 서술하면서 부드러운 리듬을 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呂祖謙은 미문이란 독자의 심미적 기호를 집중하여 독자의 내면에 충격을 주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로 심후한 함의와 미진한 의미에 대한 요점을 정리한 수평을 살펴 볼 수 있다. <送趙宏序>에 대한 수평에서 “구절이 비록 적지만, 함의가 극히 많아 문장의 기세가 복잡하지만 지극히 오묘한 맛이 있다.”³⁶⁾라고 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고대문학비평에서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言意에 대한 논쟁으로 여기서는 말로 뜻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말은 뜻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하며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呂祖謙은 언어는 간략하고 정련되지만 심의와 함의를 많이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언어는 심의 밖의 정경을 표현하는 오묘한 작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로 문자의 체계와 풍격을 정리한 首評이 있다. 즉 <諫臣論>의 수평에서 ‘주제가 뛰어나지만 제목과 상반되는 체계’³⁷⁾라고 한 것이 그

35) 《古文關鍵·送徐無黨南歸序》: 此篇文字象一箇階級, 自下說上, 一級進一級.

36) 《古文關鍵·送趙宏序》: 句雖少, 意極多, 文勢曲折, 極有味.

37) 《古文關鍵·諫臣論》: 意勝反題格.

것이다. 이상의 수평의 세 가지 유형은 呂祖謙의 문학론을 조금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먼저 그가 經世致用の 실질적 효용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古文關鍵》은 학인의 창작을 위한 교재이므로 당연히 창작의 방법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宋代 유행했던 詩話·文話의 함축과 깨달음이라는 특성과 상반된다. 즉 《古文關鍵》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체제와 구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창작의 기교를 지도한 것이다. 이외에도 呂祖謙은 이 선문집을 통해 산문의 예술기교를 추구하고 있다. 즉 “표현은 극치에 다다르고, 의미는 무궁하다(言有盡而意無窮)”라는 명제를 통해 표현을 통한 예술적 감동을 강조하여 전통중국의 예술미를 체현하고자 했다.

尾評은 주로 全篇의 문장을 품평한다. 즉 前後가 어떻게 照應하고 또 어떤 시작과 결말 구조를 지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呂祖謙은 그 가운데에서도 “허구를 실질로 만든다(以虛作實)”는 논술 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秦始皇扶蘇論>에서 “작문의 법도는 그 후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먼저 과장되고 공허한 것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³⁸⁾라고 평어를 달았다. 呂祖謙은 문장에서 선인의 장점을 취하여 강론하면서 결미에 모든 문장을 승화시키는 논설을 적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尾評을 통해 呂祖謙은 창작에서 抑揚의 법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古文關鍵》 62편은 모두 夾評을 갖고 있다. 이 평어는 내용의 함의와 구조, 선후조응, 작법과 구법, 영향, 독법지도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다. 夾評은 간단한 글자 혹은 한두 구절로 간략하게 작품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한다. 한 글자의 평어로는 抑, 揚, 開, 合 등이 있고, 두 글자의 평어로는 意高, 主意, 眼目, 有力 등이 있으며, 세 글자 평어에는 起得好, 承得上 등이 있다. 이상의 夾評을 통해 呂祖謙이 고전 산문의 예술특징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갖고 간략한 비평용어로 자신의 문학론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결한 비평 용어를 통해 고문창작의 예술적 특징을 개괄해 냄으로써 표현과 구성, 상상력 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古文關鍵》의 夾評

38) 《古文關鍵·秦始皇扶蘇論》: 作文之法要說他後面不是, 故先張大, 以虛作實也.

중 12곳에서 사용된 '餘意'라는 비평용어가 중요하다. 그것은 내용의 핵심과 함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지적하여 새롭고 뛰어나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평용어로 독자에게 감동을 제공했다. 즉 경계를 넘어서서 이미지를 깨닫고 무궁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감동을 정리했다. 중국 고전문학에서 최고의 예술 경지란 문자 본연의 특성을 넘어서서 문화 경지를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볼 때, 呂祖謙은 중요한 구절에서 협평을 첨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古文關鍵》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협평도 매우 많다. 즉 대상의 묘사를 정리하고 단락을 총결하면서 문장의 오묘한 이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문장의 풍격과 특징의 핵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呂祖謙은 문장에 있어 자연스러운 기승전결의 구성을 통한 언어의 운용 기교를 강조했다. 즉 구법과 자법, 표현의 새로움을 통해 예술 전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상의 評語들은 산문선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당송 고문가들은 자신의 역량을 다해 창작했지만 그들의 세련된 구성과 정지한 언어표현, 충만한 예술표현은 그것을 이해하는 독자를 만나야만 진정으로 그 의미가 발현될 수 있었다. 呂祖謙의 다양한 평어들은 독자와 학인들이 당송 산문의 함의와 특징, 풍격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볼 때 《古文關鍵》이 단순히 과거 응시를 위한 교재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2 圈點의 의미와 활용

圈點은 중국 문학비평의 고유한 형식이다. 특히 點은 통칭 點抹 혹은 圈點 등으로 일컫는 다양한 부호들을 말한다. 이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표시 방법이 변화했고,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吳承學 교수는

‘筆抹 형식은 북송에 이미 유행했지만 圈點은 남송 말년에 접어들어 성행했다.’³⁹⁾라고 주장했다. 圈點은 문자를 초월한 특수 분석 부호로서 이것은 독자의 주의를 일깨우는 분명한 상징 부호이다. 하지만 이 부호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세세하게 체득하려면 문자비평과는 다른 형식적 특색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곧 圈點이 간결하고 함축적 비평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평어와 상호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古文關鍵》의 點과 抹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대다수의 點抹이 刊行 과정에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四庫全書提要》는 ‘이 판본은 明 嘉靖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鄭鳳翔이 序를 남겼다. 또 다른 판본도 판각되었는데, 이 측면에 抹을 적었고, 평론은 동일하였다. 陳振孫은 그것을 ‘標抹註釋으로 초학자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원본에는 標抹이 있었지만, 이 판본을 판각할 때, 宋人 독서의 핵심이 筆抹에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재의 圈點과 같지 않아 쓸데없다고 여겨 제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吳承學 교수는 현재 남겨진 點抹을 中山大學 관장 明初 각본과 日本官版 《古文關鍵》을 참조하여 3가지 종류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古文關鍵》에서 찾을 수 있는 ‘圈點’ 형식은 點, 抹과 截이 있다. 點의 부호는 ‘、’을 사용하고, 抹은 ‘|’으로 문장의 중요한 글자와 단어, 구절의 오른쪽에 표시한다. 또한 截은 ‘└’를 통해 단락이 끝난 것을 표시한다. 《古文關鍵》은 抹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핵심어와 구법의 중요한 곳에 표시하였다. 點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중요한 어휘를 표시하고, 각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獲麟解>에서는 8개의 知와 4개의 祥의 글자 옆에 특별히 ‘點’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문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문장부호로 혹은 독해의 분석 기호로 생각할 수 있다. 截은 ‘└’을 사용하여 문단을 구분하는 부호로서 ‘勾乙’이라고도 불리며 단락이 끝나면 分段할 때 사용했다.

39) 吳承學, 《現存評點第一書》(文學遺產, 2003년4期), 79쪽.

40) 《四庫總目提要》卷187: 此本為明嘉靖中所刊, 前有鄭鳳翔序. 又別一本所刻, 旁有鈎抹之處, 而評論則同. 考陳振孫謂其‘標抹註釋, 以教初學.’則原本實有標抹, 此本蓋刊板之時, 不知宋人讀書於要處, 多以筆抹, 不似今人之圈點, 以為無用而刪之矣.

3. 나가는 말

呂祖謙이 편찬한 《古文關鍵》은 당시 그의 명망으로 인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저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문의 기준을 시대와 문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특히 秦漢 산문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바로 中唐의 韓愈와 柳宗元, 北宋의 歐陽脩, 蘇軾 등의 문장을 수록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明代 唐宋派의 '唐宋八大家' 유파 구분에 있어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古文關鍵》은 단순히 선문에 그치지 않고 평점을 달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선문은 선문가의 산문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평어를 통해 선문가의 비평적 관점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선문가는 엄정한 태도를 통해 모범적 문장을 선별한다. 후인들은 《古文關鍵》이 당시와 후대에도 많이 읽혀지고 언급된 것의 근거로 볼 때 이 책의 선문 기준을 긍정하고 인정했다. 특히 《古文關鍵》의 '評點'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산문선집에서 처음 운용된 평점은 시대와 작자·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준다. 즉 총론의 <總論看文字法>, <論作文法>, <論文字病>은 당송산문의 법도와 창작법, 독해법에 대한 呂祖謙의 산문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총론에서는 다양한 비평용어를 제시하여 산문의 풍격을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았다.

評語는 위치에 따라 首評·尾評·夾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首評은 제목 아래 평어로서 문장의 구조, 주제, 요점에 대한 이해를 도와 독해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한 尾評은 마지막에서 전체 문장의 구성과 변화, 의미를 정리하여 독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夾評은 중요한 문구와 글자에 간단한 비평용어나 어구를 첨부함으로써 독자가 요점을 놓치지 않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評語는 이전에는 經典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산문선집

에서도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古文關鍵》은 권점을 중요하게 사용하였지만, 이쉽게도 明代에 판각되면서 제거된 채 출판되었다. 하지만 日本官刻本과 明初刻本을 통해 點 ‘、’ 과 抹 ‘|’, 截 ‘┌’ 등의 부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의미와 활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후대 《古文關鍵》의 영향은 작문교재로서 실제적인 활용 측면 및 그것이 담고 있는 문학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실제 활용 면에서 《古文關鍵》은 과거를 준비하는 학인들에게 필요한 작문의 방법과 독해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송은 대량인쇄를 통한 출판이 성행하였고, 관직에 진출을 위한 과거 학습 교재가 널리 보급된다. 즉 學人의 과거 교재로서 策·論文을 주로 수록한 중요 참고서로 《古文關鍵》은 사용되었다. 이 책이 널리 호응을 얻자, 呂祖謙의 제자와 동료들은 그 편목을 확대하여 《崇古文訣》, 《文章軌範》, 《古文集成》 등을 계속 편술한다. 이 산문선집들은 《古文關鍵》과 同異點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각 문선집의 編選 기준과 評語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편선과 평어에 따라 편술가의 문학관과 당시의 산문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明代 唐宋派에도 이어져 歸有光是 《文章指南》의 총론을 바로 <歸震川先生總論文字法>과 <歸震川先生作文法>으로 작성해 《古文關鍵》의 총론 형식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古文關鍵》의 선문과 평점은 당송팔대가 형성 및 당송고문의 경전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參考文獻 >

- 呂祖謙, 《古文關鍵》, 叢書集成初編, 台北: 藝文印書館, 1968.
 《四庫總目提要》, 北京: 中華書局, 1994.
 黃宗義·全祖望, 《宋元學案》, 北京: 中華書局, 1986.

- 魯迅, 《魯迅全集》, 北京: 中華書局, 1993.
- 陸游, 《老學庵筆記》, 台北: 藝文印書館, 1965.
- 仇小屏, 《呂祖謙〈古文關鍵〉文章論研究》, 台北: 萬卷樓, 2010.
- 張智華, 《南宋的詩文選本研究》, 北京: 北京師大出版部, 2001.
- 張秀惠, 《南宋古文評點研究》, 台北: 政治大學中文研究所 碩士論文, 1986.
- 당윤희, <茅坤의 唐宋 古文 評點 비평에 대한 고찰>, 《中國文學》 第86輯, 2016.
- 백광준, <《唐宋八大家文鈔》의 起源에 관하여>, 《中國文學》 第43輯, 2005.
- 付瓊, <唐宋八大家選本在明清時期的衍生和流行>,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8年 4期.
- 吳承學, <現存評點第一書>, 《文學遺產》 2003年 4期.
- _____, <評點之興>, 《文學評論》 1995年 1期.
- 張智華, <南宋所編古文選本與古文家的文論>, 《文學遺產》 1999年 5期.

< Abstract >

A Study of The Prose Selections of Tang-Song's Structure and Contents

Park, Junsoo

The Prose Selections of Tang-Song is a specific and precise expression of Tang-Song concepts of writing styles and literature. In terms of rules of compilation, The Prose Selections of Tang-Song were generally compiled in order of writing styles, writers, types, and skills. Lü, Zuqian's commented and appreciated 'the Prose of Eight Masters in Tang-Song Dynasty'. Especially Guwenguanjian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the style of Classical prose. This book established the literary school through the criticism of comments about selection and appreciating the prose of Tang and Song, which could help efficiently the a candidate for an examination to learn and follow it, and

moreover to succe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critical reception through the criticism of commentaries by Lü Zuqian could be explained in three introductions. First, it focused on the one of the Song Period, 'Wen-yi-zai-dao'. Second, it expressed the model and the structure of Classical prose and constructed the literary theory which established the consciousness of criticism and appreciation by comments. Third, it also emphasized the feeling of the prose and the private distinction of the author, which included contents of the Classical prose.

Key words: *Guwenguanjian*, Lü Zuqian, criticism of commentaries, punctuate,
The anthology of Tang-Song

투 고 일: 2017. 05. 10

심 사 일: 2017. 05. 16-05. 30

게재확정일: 2017. 06. 15